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60호(99/12/22)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참세상)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Internet Web; <http://www.sarangbang.or.kr>



인권운동사랑방의 상임활동가, 자원활동가들입니다

“새해에도 밝은 웃음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김하나, 류은숙, 임주현, 배경내, 김정희, 최은아 - 아랫줄 왼쪽부터 / 성동철, 서준식, 임태훈, 박래균, 이영태, 고근예, 유해정, 김정아, 이주영, 이창조 - 윗줄 왼쪽부터)

12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었습니다(<http://www.sarangbang.or.kr>). 대표 이메일도 humanrights@sarangbang.or.kr로 바뀌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살겠습니다.

어느덧 20세기 마지막 해가 저물어갑니다.
세기가 바뀐다는 것이 그저 자연적 시간의 흐름일 뿐,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님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어쩌면 오늘과는 다른 내일, 좀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란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역사 속에 묻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휴화산이 폭발하듯이
한 순간에 드러나기도 할 20세기의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고 새로운 세기의 문턱을 넘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한 해 동안 새 천년의 희망을 구상하기보다는 당장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매진해야 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를 올바로 세워내기 위해 벌였던 인권활동가의 단식농성장에서,
국가보안법 7조의 완전삭제를 위한 연대활동의 장에서 우리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회권 현실에 대한
진단작업이 보고서로 결실을 맺었고, 감옥 재소자의 권리를 밝히기 위한
지침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교재를 출간했던 경험을 토대로
인권캠프를 개최했고, 4회 인권영화제도 치루어냈습니다.
여전히 인권하루소식 기자들은 인권현실을 파헤치기 위해 분주했고,
정보자료실은 새로운 키워드를 마련하여 자료실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온몸으로 부딪히며 성과를 낼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의욕만 앞세웠다가
주저앉고 말았던 좌절의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의 시기마다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올 한 해도 우리는 곳곳이 서 있습니다. 다시 헤쳐나갈
앞날이 멀기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는 21세기에도 변함없는 헌신과 열정으로 인권운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21세기가 우리 모두의 희망으로 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세기는 개별적이건 집단적이건 구조적이건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하시고자 하는 일 새해에는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식구들-

네번째 '불법' 영화제 종료

- 많은 과제 남긴 제4회 인권영화제 -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열렸던 제4회 인권영화제는 나름대로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별도의 조직을 꾸리지 않고 내용·형식 모든 면에서 사랑방이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했던 이번 영화제를 돌아볼 때, 영화제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스태프의 구성, 작품 섭외, 자막, 번역, 진행 등에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규모 영화제처럼 인권영화제도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5천명으로 예상되는 전체 관객 면에서도 그렇고, 관객들의 관심과 반응도 예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개최 시기도 좋지 않았고, 상업영화에 비해 재미없고 지루한 작품만 상영한다는 편견도 작용한 듯합니다. 물론 이번 영화제 역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영화제였지만, 정부도 내성을 갖추었는지 눈에 띄는 탄압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난감한 사안으로 등장한 상영장 확보의 문제를 비롯해 살아남는 영화제, 의미있는 영화제가 될 수 있는 길을 차분히 모색하여 5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영화제의 진로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올 영화제를 일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작 <민중에게 권력을>

국내 14편, 해외 29편을 53회에 걸쳐 상영했던 영화제에서 관객의 사랑을 받은 작품은 개막작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를 비롯해 <에스코바의 자살골> <소코로 노브레-삶은 어딘가에> <슬픔과 연민> <독방의 활력>과 <국가범죄-레드헌트2> <민들레> <무명천 할머니> <열대야> 등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는 미국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좌파정당 '흑표범당'의 진실을 침착하게 반추해 미국 인종차별의 사악함을 폭로하는 수작이었습니다. <에스코바의 자살골>은 94년 월드컵경기 도중 자살골을 넣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에스코바의 이야기를 화두로 콜롬비아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작품이며 <소코로 노브레>는 브라질 영화 <중앙역>의 감독 월터 살레스의 시적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작품은 수인의 인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폭소를 자아내게 한 <독방의 활력>은 호주에서 날아온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의 자유'를 재소자의 상상력에 빚대어 표현한 유쾌한 개그였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가장 큰 경향을 말한다면 '한국영화의 약진'을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과 인기는 예년에 비해 한층 열기를 더했습니다. <레드헌트>에 이어 하늬영상에서 내놓은 4·3제주항쟁의 진실을 밝히는 다큐멘터리 <국가범죄-레

드헌트2》는 개막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명천 할머니> 역시 4·3을 증언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이 작품은 특히 4·3의 피해자인 진아영 할머니의 슬픈 운명을 집중 조명한 작품으로 상영 내내 관객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작품을 만든 4·3 다큐멘터리 제작단은 <무명천 할머니>와 같은 4·3 피해자 시리즈를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독립영화 진영에서 상을 휩쓸고 화제가 된 <민들레>에 대한 관객들의 애정은 매우 각별했습니다. 영화 상영에 참석해 주신 유가협 회원들과 함께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에서 관객들은 영화의 감동을 재삼 말하면서 유가협의 활동을 '물심'으로 지원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습니다.

인권영화상에 <열대야>

올해 인권영화제가 처음으로 제정한 '올해의 인권영화상'은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장편 다큐멘터리 <열대야>에게 그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이 작품은 98년 부산KBS에서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이근호 씨가 2달 동안 현대자동차 정리해고반대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작한 1인 제작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제까지 제작된 '노동운동' 다큐멘터리와 판이하게 다른 영상문법을 구사하고 있는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은 생존권 투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울산 현장의 구석 구석을 누비면서 수많은 노동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토해내는 그 목소리를 여과없이 담아냈다는 점입니다. "방송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는 나로서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는 이 감독은 195분이라는 위험스러운 작품 길이로 한국의 '독립 다큐멘터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서준식 대표와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 이승훈 피디(교육방송 시네마천국) 그리고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제4회 인권영화제에서는 몇 가지 부대행사도 곁들였습니다. 먼저 개막작에서 소개된 무미아 아부자말의 석방운동으로 '미대사관에 항의 엽서 쓰기'를 영화제 전 기간동안 벌여 총 500여통의 엽서를 수거했습니다. 수거된 엽서는 미대사관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21세기 인권운동을 진단하는 자리로 인권활동가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21세기 인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마련했으며 11월 30일 시애틀 민중행동에 맞추어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이라는 섹션을 마련해 영화상영과 뉴라운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제4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한 작품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30,000원	<멈추지 않는 대량학살 대인지뢰> 20,000원
<세계인권선언의 역사> 20,000원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20,000원
<국가범죄-레드헌트2> 30,000원	

* 구입문의 741-2407(김정아)

≡ ≡ ≡ ≡ ≡ ≡ ≡ ≡ ≡ ≡ ≡ ≡ ≡ ≡

사 / 업 / 보 / 고

(99년 11월 넷째 주부터 12월 넷째주까지)

≡ ≡ ≡ ≡ ≡ ≡ ≡ ≡ ≡ ≡ ≡ ≡ ≡ ≡

송년회 호뭇하게 치뤘

20세기를 마감하는 사랑방 송년모임이 지난 12월 20일 오후 7시부터 사무실 근처 주점 '술익는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랑방 성원과 자원활동가를 비롯해 이동수 화백, 문화평론가 김규항씨, 광노현 방송대 교수, 진영종·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이제훈 기자를 비롯하여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현직 교도관들, 인권실천시민연대 활동가 등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일정이 겹친 관계로 참석치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른 해와는 달리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던 관계로 시종일관 재미와 폭소를 자아냈는데, O,X게임, 사랑방 10대 뉴스, 3대 사랑방 인권침해 사건 등을 재미있게 엮어서 진행했습니다. 순서 마지막으로 그간 사랑방의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분들을 선정해 수상을 했습니다. 인권도우미상에는 이동수 만화가, 인권지킴이상에는 이상희 변호사, 공로상에는 권태평 어머니, 이영태 자원활동가, 우정상에는 김일숙 영화제 스텝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인권법 강행 처리 저지, 그러나...

지난 20일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인권법 제정을 연기한다는 여당측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인권법안이 인권위원회를 특수법인의 위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의 강행처리 방침을 포기한 것은 일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법무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특수법인 인권위원회 설치를 끊임없이 비판해 온 공대위 활동의 성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5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인권법안도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어, 16대 국회에서 인권위 설치가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반 동안 독립적이고 실효성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던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 현 정권 하에서 인권위원회 설치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사회권위원회, 사회권운동 워크숍

보고서 작업 이후 사회권운동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변,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9개 단체 활동가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권운동의 진로를 모색한다'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사랑방 사회권위원회가 '사회권의 개념과 사회권운동의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5개 단체가 주거(한국도시연구소), 건강(민중의료연합), 사회복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시설(민변 사회복지위원회), 실업(사회진보연대) 등에 대한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각 단체가 진행해온 사회권 관련 운동의 관

점, 경과와 이에 대한 반성, 이후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깊은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각각의 주제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권이라는 인권의 개념으로 꿰어낼 수 있는지, 이후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활동의 연장선 위에서 사회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워크숍 등을 민변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독일 에버트 재단에 연말까지 프로젝트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권위원회는 내년을 사회권운동의 기초를 놓는 해로 설정하고, 우선 사회권 조약 해설서 제작과 사회권 조약 2차 보고서 작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2월 10일 출간될 예정이었던 사회권보고서 『인간답게 살 권리』의 출간이 인쇄소 사정으로 출간이 늦어져 애를 태웠습니다. 보고서는 오는 28일에는 정식으로 출간됩니다.

자유권위원회, 감옥 캠페인 계획

자유권위원회는 2000년도 감옥의 인권 사업으로 '재소자 인권 옹호를 위한 캠페인'을 계획하여 2000년도 시민운동지원 기금 프로젝트 공모에 12월 6일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선정 결과는 1월 6일 통보됩니다.

12월 13일 감옥모임에서는 재소자 인권지침서와 관련해서 '종교, 식사, 운동, 의료, 청원, 여성'부분의 처우와 권리를 검토하고 토론하였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재소자의 지위와 처우를 검토하고 앞으로 확대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토론하고, 「감시와 처벌」 세미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다음모임은 12월 27일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교정협회와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려 통지함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안희권 검사와 검찰직원 3인을 피의자 폭행 및 공모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12월 1일 서울지검이 11월5일 무혐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12월 1일, 항고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한편, 보안관찰법과 관련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민변 공익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덕수합동의 이석태 변호사께서 맡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존속

국가보안법 개정이 미뤄짐에 따라 올해의 국가보안법 투쟁이 종결되었습니다. 7조 3항을 남긴 채 7조의 대폭 삭제를 내용으로 했던 국민회의 개정안이 자민련과의 협의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혀 이번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7조의 완전한 삭제를 목표로 활동해 온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의 활동도 이후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22일 열린 국민연대 집행위원회에서는 활동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직을 존속하기로 하고, 대신 개인들로 이뤄지는 국가보안법 팀을 별도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국민연대가 단체들의 연대기구로 이뤄지다 보니 활동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과 새롭게 논리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투쟁은 새해에도 이어집니다.

□ 인권교육실은 공동육아연구회, YMCA 서초지회 강연과 송실대 인권소모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번역 의뢰를 받아 번역작업도 하였습니다. 번역료는 사무실 재정으로 쓰입니다.

배경내씨는 지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 학교인권교육 워크숍'에 한국측 민간단체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일본, 중국, 몽고, 한국 4개국에서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외무부의 정부대표들, 민간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가한 행사였습니다. 워크숍은 각국의 인권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학교내 인권교육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나, 대부분의 정부측 참가자들이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고 인권교육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여 각국 정부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담당해야 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명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습니다. 교육실은 곧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워크숍, 대학생 월례포럼, 교사대상 인권교육 강연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사회권위원회가 참가하고 있는 'ASEM 2000 한국민간단체포럼'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럼은 사무국장과 사무국 상근 일꾼을 공채하여 뽑았고, 1월초 기독교연합회관에 사무실을 낼 예정입니다. 사회권위원회가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인권분과는 지난 12월 22일 수원 다산인권상담소에서 다섯 번째 회의를 갖고 유엔인권소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이후 의제개발을 위해 참가단체들의 고민을 나눌 계획입니다.

또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지난 12월 9일 에바다 농아원 방문하

여 농아원생과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연대회의는 에바다 문제의 정리를 위한 사업방향을 놓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 정보자료실의 키워드 개편작업이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류은숙씨가 학원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오전과 밤 늦은 시간에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실은 인권운동사랑방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료실, 실제 이용될 수 있는 자료실로 거듭나기 위한 대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인권하루소식>이 올해에도 '인권 10대 뉴스'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45년 이후의 인권침해자와 기여자, 올해의 인권침해자와 기여자를 뽑고 있습니다. 10대 뉴스 선정결과는 29일자에 게재하고, 동시에 언론에도 공개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30일자로 종간을 하고 2천년 1월 7일자부터 다시 발간하게 됩니다.

□ 사무국에서는 12월에 들어 매주 각실과 사업위원회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들에 기초하여 1월 중순경 MT를 갖고 신년도 사업계획을 완성하게 됩니다. 한편, 사무국은 30일 종무식을 갖고 단합 MT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신정연휴는 1월 5일까지이며, 1월 6일부터 정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 이창조 총무가 11월 중순부터 한달간 논술시험 침식지도 아르바이트로 고생하였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의 수익금 중 반액을 사무실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서준식 대표가 허리가 몹시 아파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껴안고 몸을 무리하게 굴린 탓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99년 11월 재정 보고

(99년 11월 16일 - 12월 15일)

이월금: -114,613원

수입		지출	
총사업수익	4,454,480원	사업비	999,860원
-하루소식	3,565,200원	-하루소식	764,160원
구독료(194명)	2,974,700	발송비	146,160
인권시평 배급	294,100	복사비	58,000
합본호 판매	296,400	합본 12호 제작비	560,000
-정보자료실	229,780원	-정보자료실(정간물 구독)	64,000원
간행물·자료집 판매	102,520	-인권교육실(자료구입)	7,000원
영상자료 판매	29,900	-자유권위원회	110,850원
자료복사비	12,200	행형, 보안관찰, 고발	4,070
국감자료집 판매	85,160	국가보안법국민연대 지원	106,780
-인권교육실	609,500원	-사회권위원회(출장비)	25,000원
강연료	534,500	-대외사업	100,000원
교육비	75,000	투자협정반대 민중행동 분담금	
-사무국장(교육비)	50,000원	인권실천시민연대 주점 참가	
		-후원회원 사업	29,690원
후원금	3,005,872원	활동비	4,325,000원
-정기 후원회비(37명)	1,972,900	사무실유지비	1,008,410원
-특별후원금	1,032,972	통신비용	1,300,940원
		-일반전화, 팩스	1,189,230
기타	929,582원	-피시통신, 인터넷	111,710
-자료실 재정사업	750,000	난방비용	230,500원
-은행이자	3,382	-난방기구 구입 및 설치비	118,000
-류은숙 기여금	150,000	-연료비(가스, 석유)	112,500
-기타	26,200	사무비품 및 사무기기	737,300원
부채	1,350,000원	-사무비품(소모품) 구입	417,300
		-제본기 구입	320,000
		사무국 식비	458,370원
		생활비(생수, 커피 등)	206,480원
		부채상환	300,000원
		기타	72,240원
		-깃대, 열사력 구입, 사무국장 핸드폰비용,	
		이동수씨 전시회 참여 등	
총수입:	9,739,934원	총지출:	9,739,940원
잔액 :			-114,619원
현 부채액 :			19,086,400원